

일 어

2014년 시행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다음 글을 우리말로 옮기시오.

(총 25점)

- 1) 「熱いうち」とは、知れたこと、小さいときである。大学でないことははっきりしている。高校、中学でもない。小学校でも遅い。幼稚園でもすでに遅い。生まれてからの数年が一番「熱い」。大学ではもう熱いどころか冷えた鉄になっている。そんなものをたたいてみたところで、どうにもなるものではない。カチンカチンと音をたててはねかえす。本当の教育ができないから、就職目当てのことくらいでお茶をにごす。
- 鉄を熱いうちに打ちたいと思っても、幼い子を教えてくれるところがない。保育所は預ってはくれるが、教育はしない。だれがするのか。
- 母親である。母親は先生なのだ。それも子にとって、もっとも大切な先生になる。このことを、知恵のある母親ですらほとんど自覚しない。世の中がみんな上を向いて教育を考えているからであろう。みどり児のときは幼稚園えらびに狂奔し、幼稚園では小学校、小学校は中学、中学は高校、そして大学。脚下を照顧することを忘れている。
- お母さん先生は生まれたばかりのわが子に何を教えるのか。まず、ことば。ことばなんか放っておいても覚えるものと考えている人が少なくないのは不思議だ。お母さんはまず母国語の先生にならなくてはいけないのだが、教え方を知っていると胸を張れる人はまずないと言ってよい。
- ことばがいい加減になれば一生ひびくであろうことは覚悟しておかなくてはならない。三つ時の魂は母親の膝の上で作られる。是非善悪のわきまのない子に精神教育などできるわけがないが、ことばを教えているうちに、おのずから心も育てられる。三つ児の魂は、ことばによって形づくられると考えてよい。
- (15점)

- 2) 最近の若者を「内向き志向」だと非難する声がある。確かに文部科学省の調査では 2010年の日本人の海外留学生数は5万8060人と、ピークの04年より30.0%も減った。特に米国への留学生数の落ち込みが大きい。

しかし、韓国、中国、台湾などのアジア圏やカナダなどへの留学生は、最近増え始めている。若年人口それ自体の減少や留学先の分散化が、内向きという印象を強めた面はないか。

留学情報を提供する日米教育委員会（フルブライト・ジャパン）によれば、米国の大学院に留学を希望する日本人大学生は今も増えているという。しかし、「英語力、家庭の経済状況、帰国後の就職不安」を理由に、多くがあきらめるそうだ。英語教育の充実、経済支援や就職活動での配慮をもって広げてもいい。

また、産業能率大学の新入社員調査では、海外赴任を希望しない若者が直近で58.3%と、6年間で22.1ポイントも増えた。しかし、一方で「どんな国・地域でも働きたい」という人も11.5ポイント増え、29.5%と過去最高になっている。

積極派は若いうちからどんどん登用したい。海外に尻込みする層にも、意欲はあるか語学力や親の世話などが気になっている例もあるのではないか。海外体験が評価されにくい企業風土も挑戦をためらわせる。学校、行政、企業は不安の解消に努めてはどうか。(10점)



제 2 문. 다음 글을 일어로 옮기시오.

(총 25점)

- 1) 기술 개발의 목적은 인간의 능력을 대체하는 기계를 만드는 데에 있다. 즉 기술의 발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인간의 필요에서 오는 것이다.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고 청소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기나 청소 로봇을 만든다. 이처럼 인간의 요구를 기계로 치환해 온 것이 기술 개발의 역사인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기계로 인간의 능력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발상 하에 인간에 근접한 로봇도 만들어 온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배경에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깊은 흥미가 있다.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물음이며 역사 속에서 항상 인류가 지속적으로 물어왔던 질문이기도 하다. (10점)
- 2) 유럽발 금융위기 극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채로 세계경제는 한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은 만큼 파란만장한 한해가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금융위기와 긴축재정 등으로 인해 유럽권은 반드시 마이너스성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상승세를 타고 있던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발목을 잡아 끝내는 세계경제의 급격한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방만재정을 일삼은 그리스가 발단이 되어 거액의 재정적자를 안고 있던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에 신용불안의 불뚝이 튀었다. 시장은 동요하였고 주가는 폭락하였다. 향후 메이저 신용평가회사가 프랑스 등을 포함한 유럽각국의 국채신용등급을 한 단계 더 강등할 우려도 있어 혼란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듯하다. 통화는 하나이나 재정이 제각각이라는 점이 유럽의 근본적인 문제이기에 각국의 정상들이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서로 감시하는 쪽으로 합의에 이른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다. (15점)

안전행정부 시험출제과장

